

청년 창업자들, '함께 일하고 교류하고'

전주시, 전북자치도·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워크넷 행사' 개최

전북지역 청년 창업자들이 국내 유망 스타트업, 투자자와 만나 함께 일하며 교류하는 행사가 전주한옥마을에서 펼쳐졌다.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하 디캠프)은 3일 전주한옥마을 내 지식기반산업진흥원에서 '디캠프와 함께 하는 전북 워크넷' 행사를 개최했다.

'워크넷'은 '일(Work)을 하며 연결(Connect)되고 연결을 통해 성장하자'라는 의미로, 1일간 전주한옥마을에서 함께 근무하며 자유롭게 네트워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디캠프는 국내 최대규모 민간 창업지원기관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으로, 그간 △토스 △한국신용데이터 △핏켓 △이노스페이스 등 주요 스타트업을 발굴한 바 있



전북지역 청년 창업자들이 국내 유망 스타트업, 투자자와 만나 함께 일하며 교류하는 행사가 전주한옥마을에서 펼쳐졌다.

다. 지역 내 청년 창업자 등 4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참여자 및 공공조달 관련 소개 △전주한옥마을을 둘러 전주시의 현황 및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한옥마을 현장 투어' △인라이프, 현대기술투자 등 투자·창업지원 담당자들과 '개별 상담' △40여 참여기업 대표 등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점심·저녁 네트워킹'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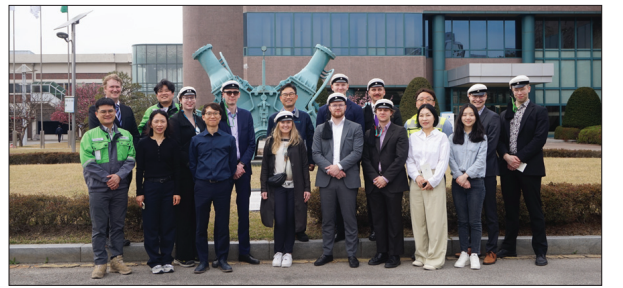
시와 전북특별자치도, 디캠프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킹을 통해 전주한옥마을에서 혁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 25~27일까지는 전국의 창업자와 투자자 등 1000여 명 이상 참여하는 '전주한옥마을 스타트업 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페스티벌'에서는 전주한옥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각자의 해결책을 발표하는 '스타트업 데모데이'와 '디데이', 스타트업의 제품들을 전시·관매하는 '박람회', '컨퍼런스' 등이 진행된다.

한병삼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디캠프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스타트업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하며 성장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북지역 창업생태계가 더욱 견고하고, 향후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버팀목으로 성장하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3일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에 핀란드의 오울루 대학교에서 제지 산업을 주요 과목으로 공부하는 학생 9명과 교수 1명이 방문했다.

핀란드 오울루 대학, 전주페이퍼 방문

국내 최대 규모 제지 공장 전주공장 생산 시설 견학

3일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에 특별한 손님들의 방문이 있었다. 최근 핀란드의 오울루 대학교에서 제지 산업을 주요 과목으로 공부하는 학생 9명과 교수 1명으로 구성된 방문 그룹이 한국을 방문했다.

핀란드 북부 도시 오울루에 위치한 오울루 대학교는 북유럽에서 가장 큰 캠퍼스를 자랑하며, 약 1만 4천명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방문 그룹은 3.26~ 4.3일까지 약 열흘간 한국에 머물면서 마지막 일정으로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을 다녀갔다.

이번 견학의 주요 목적은 다른 나라의 제지 공정과 제지 회사를 방문하여 공장, 기계 및 작업 방식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견학은 오울루 대학의 40년간 이어진 전통적인 행사이다.

이 견학에 참여한 학생들은 제지 산업을 주요 과목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졸업 후 제지 산업에서 일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전주페이퍼는 단일 공장으로는 국내 최대의 규모의 제지 공장으로, 신문용지와 출판용지부터 골판

지 원지까지 다양한 산업용지를 생산하고 있어 학생들은 다양한 종이 생산 시설에 대해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전주한지박물관에서 한국 고유의 종이 문화에 대해서도 체험하는 시간을 통해 한국 고유의 문화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전주'라는 지역 이름을 유래로 한 기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주페이퍼는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지원해 오고 있다. 학생들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며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주페이퍼를 방문한 학생들은 공장 견학 이외에도 한식 요리를 직접 만들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전통적인 한국의 맛과 향을 맛보며, 문화 교류의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며 이러한 경험은 제지 산업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비빔밥축제' 추진단체 공모

시, 22일까지 모집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시가 대한민국 대표 미식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를 함께 준비할 단체를 모집한다.

시는 '2024 전주비빔밥축제'를 전주의 대표 음식축제로는 명성에 맞게 기획·운영할 추진단체를 오는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2024 전주비빔밥축제는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문화 관련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기관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올해 전주비빔밥축제를 전주비빔밥뿐만 아니라 맛의 교장 전주의 특별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한국 전통의 맛과 멋, 흥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비빔밥축제는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로 손꼽히는 전주비빔밥 등 한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이라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시는 '2024 전주비빔밥축제'를 전주의 대표 음식축제로는 명성에 맞게 기획·운영할 추진단체를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2023 전주비빔밥축제.

인 전주의 자부심으로 올해 축제를 함께 만들어갈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현대 홈경기 '1994 특별노선' 시민 만족도 높아

3월 중 개최된 2회 홈경기에 약 27000여명 시민 탑승

전북현대 축구팬을 위해 경기 시작 전·후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오가는 1994 특별노선이 성공적인 2024년도 운영을 시작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중 두 차례 열린 전북현대모터스FC의 프로축구 홈경기 당일 약 27000명의 축구팬이 1994 특별노선을 이용했다고 3일 밝혔다.

2만15000여 명이 관람한 3월 1일 전북현대 홈경기 개막전에는 1200여 명이 1994 특별노선을 이용했으며, 지난달

30일 울산현대와의 현대가(家) 라이벌 매치에는 2만16000여 명이 관람한 가운데 15000여 명이 1994 특별노선을 이용했다.

특히 시는 경기 전·후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했던 혁신도시와 민성지구 방면에는 마을버스 2대를 투입해 설 새 없이 관람객들을 실어 나르기도 했다.

또한 전주월드컵경기장과 덕진경찰서를 경유해 평화동으로 향하는 309번



전북현대 축구팬을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오가는 1994 특별노선이 성공적인 2024년도 운영을 시작했다.

노선의 주말 감회 운영을 철회하고 정상 운행하는 등 스포츠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시는 앞으로 경기 전·후 많은 관람객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

상되는 교통사고 위험을 차단하고,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안내 직원들을 곳곳에 투입하는 등 올해 두 차례의 1994 특별노선 운영 결과를 토대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더욱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전북현대 홈경기 1994특별노선을 향한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주말 홈경기 관람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동하는 만큼 교통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1994 특별노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버스정책과(063-281-5108)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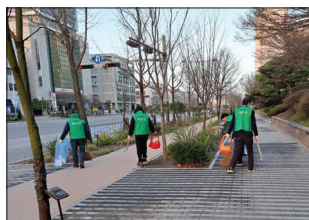
전주시 인후2동 새마을협의회, 봄맞이 환경정비 나서

덕진구 인후2동 새마을협의회(위원장 이정섭)는 지난 2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백제대로 일원에서 봄맞이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비를 위해 모인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은 환경 취약지를 중심으로 동네 곳곳에 쌓였던 각종 쓰레기를 정비해 쾌적한 마을 만들기에 힘을 모았다.

또한 대로변 버스정류장과 주요 주행로 주변에 자라난 잡초 제거 및 버려진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진숙 인후2동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주시는 인후2동 새마을협의회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동에서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